행복한 극락부처학교를 향하여…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㉕ 정토삼부경 1 〈아미타경(阿彌陀經)〉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을까, 십 만억 국토를 지나간 우주 저 편에 있다고, 마음에 있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도 있고, 또 내 삶에도 극락은 있다. 극락은 과거 무량겁 전에 세자재왕 부처님께 법장스님이 부탁해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학교를 건립한 것이 바로 극락세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10가지 선업수행으로 인생을 잘 살고 나면 극락부처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모르는 사람들이 극락이 우리가 가는 가장 최고의 장소인줄 알지만 그 곳이 끝이 아니라 다시 9개 반(九品)으로 나뉘어 마음공부와 실천하면 그 때 비로소 니르바나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만나고, 극락세계에 이르러 부처님처럼 되기를 발원하며 수행하여, 드디어 부처님 계신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다.

극락세계는 도착지가 아닌 경유지 일 뿐이니 전심전력하여 수행할 장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는 탐진치 삼독으로 가득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희망의 땅인 극락세계는 모두가 부처가 되는 곳이라 반드시 가야만 한다. 이 희망의 땅, 맑고 청정한 세상 극락을 알리기 위한 3가지 경전이 있다. 바로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이다. 극락은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小經인 〈아미타경〉, 그 곳에 우리를 지극한 즐거움 속에서 성불하도록 해주시는 아미타불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담긴 大經 〈무량수경〉과 이제 그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서가 담긴 觀經인 〈관무량수경〉이 있다.

한역은 구마라습의 번역이 가장 좋은 〈아미타경〉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한글 번역을 했지만 으뜸을 꼽으라면 1990년 후반 출간된 공파스님의 번역본이다. 경전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우리 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전 안에 다 녹여놓았다. 오래 전 읽었지만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청량감을 안겨주어 호탕하게 웃으며, 때론 미소 짓고 눈물도 흘리며 볼 수 있다.

한글대장경 제241책 P442~446의 〈아미타경〉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극락세계에서 모든 이들의 부처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항상 공경 공양하는 자세로 매일 아침 꽃밭에서 꽃을 한 바구니씩 따가지고 타방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법문을 듣고 아침 공양 전에 돌아와 공양을 마친 후에 그 날의 법문을 공부한다고 한다. 그 곳에 있는 새들조차 축생의 업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극락이란 멋진 삶의 공간을 장엄하기 위해 이루어진 곳이니 그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모두 법문 아닌 것이 없다. 그곳에 계신 부처님은 아미타불인데 그 분은 중생을 위한 광명을 냄이 끝이 없이 무량하므로 무량광(無量光), 그 분의 수명은 극락중생의 수명이 무량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명도 짝을 이뤄 무량수(無量壽)라고 부른다.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부처님이 우리를 부처로 만들기 위해 계시는 곳이니 그 곳은 지극한 즐거움만 있어서 극락(極樂)이라 한다.

모든 이들은 이와 같은 극락에 태어나기 위해 올 바른 수행(正行)을 해야한다. 올바른 수행은 바로 믿음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마음이다. 확신을 지닌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

앞을 향해 나아감에 멈추려 하지 않는 직진본능처럼 극락을 가려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언제어디서나 '나무아미타불', '원왕생 ' 염불을 해야 한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날마다 부르며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법, 37조도품의 길, 대승의 보살의 길을 찾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극락에 태어난다.

아미타부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이들은 오탁악세, 그러니까 세상이 무섭고, 식견이 옹졸하며, 번뇌가 깊고, 근성이 사악하기 일쑤이고, 수명까지 짧다. 그런데 석가모니불이 그런 곳에서 최고의 깨달음인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고 부처가 되셨다. 그리고 그 세계 가련한 중생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다 하시며 믿기 어려운 극락세계의 나, 아미타불에 대해 설법하고 계신다. 그러니 사바세계 중생들이여, 부디 여기 오면 내 다 부처를 만들어 드릴 것이니 언제 어디서나 이와 같이 원하라."

'원컨대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왕생, 원왕생(願往生)!'

〈서울 반야사 주지〉

금강반야 얻으면 불교 집착도 사라져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㉔ 불교에 대한 집착

마음을 닦아 금강반야를 얻은 수도자는 밝아지는 과정에 어떤 정해져있는 길이 있지 아니함을 잘 압니다. 금강경 제7분에 무유정법(無有定法)을 명(名) 아누다라삼막삼보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도무문(大度無門)이라는 말씀처럼 밝아지는 과정에 정해진 길이 있지 아니함을 잘 아는 것입니다.

참선을 통해서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요, 염불을 통해서도 밝아질 수 있는 것이며 달마 스님 같은 선지식만을 통해서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효 스님 같은 선지식을 통해서도 밝아질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아상만 없으면 곧 보살이요(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 금강경 3분), 모든 상을 여의면 곧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이일체제상 즉명제불 離一切諸相 卽名諸佛).

우리는 달마 · 원효 스님 같은 분 이외에도 역사상 밝은 분 즉 아상이 없는 분이 적지 아니함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받지는 아니하였어도 공자님, 예수님 같은 분은 분명 밝은 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한결같이 아상이 없으며, 또 아상을 없애는 길이 곧 영생을 사는 길임을 강조하시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강반야를 얻은 보살 즉 아상을 소멸한 보살은 팔만대장경의 말씀으로만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지 아니합니다.

공자님, 예수님, 또는 마호메트 등 성인들은 모두 아상을 소멸하는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을 악도에서 벗어나게 하며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제7분에 일체현성(一切賢聖)이 개이무위법(皆以無爲法)에 이유차별(而有差別)(모든 성인은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 다르지만 사람들의 아상을 소멸케 하여 밝게 한다)이라 하신 것입니다.

금강반야를 실감한 밝은이는 〈금강경〉 공부가 최고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이 공부가 최고라는 자만심이 착각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금강경 공부는 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부이며, 어떤 형태이든지 아상을 소멸하게 하는 공부이면 모두 금강경 공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금강경 공부만을 최고라 하지 않음은 물론, 자신이 하는 공부만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잘 압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최고라고 주장한 각종 이념, 철학, 수련, 종교의 틀에서 모두 벗어납니다. 그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각종 철학이 제각각 다른 듯해도 결국 하나의 원리로 귀결됨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철학이나 종교가 다 다른 것은 각각 자신의 업보 업장이나 선입견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것이 사라진 밝은 사람에게는 이념, 철학 등 모든 것이 다르지 않고 평등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공부를 통하여 자력과 타력이 다르지 않고 유와 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고 문자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서 불교나 유교, 또는 기독교와 불교가 다르지 않은 가르침임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금강경을 실천하면서, 기독교인이나 유교인(儒敎人)과도 격의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쌍차쌍조(雙遮雙照) '이 뭣고'

오매일여(寤寐一如)란 일념불생(一念不生)하고 전후재단(前後裁斷)한 무심(無心)의 경지가 장벽(障壁)과 같다는 뜻이다.

즉 한생각도 나지 않고 과거와 미래가 끊어져서 번뇌가 순식간에 쉬고서 혼침과 산란을 끊어 종일토록 분별이 없으니 마치 진흙으로 만들거나 나무로 조각한 사람과 같은 까닭에 장벽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계가 나타나면 깨침이 멀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이 뭣고'로 한생각도 나지 않는 무심지(無心地)에 들면 밖으로의 모든 반연(攀緣)이 순식간에 쉬게 되고, 또 혼침과 산란을 끊어 없애게 되는데 이것이 안으로 마음이 혈덕이게 되지 않는 것이다. 외식재연 내심무천의 경지이다. 결국 도를 성취하려면 쌍차(雙遮)가 된데서, 즉 크게 죽은데서 다시 살아나 쌍조(雙照)가 되어야 한다. 죽어서도 살아나지 못하면 이것은 산송장이다. 크게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선문禪門의 생명선(生命線)이며, 그것이 '이 뭣고'이다.

식음(識陰)(제8아뢰야식)이 없어지면 오매일여(寤寐一如)의 크게 죽은 데서 다시 크게 살아나는데, 이것을 "깨끗한 유리병 속에 보배 달을 넣은 것과 같다"고 하며 안과 밖이 철저히 밝게 되는 것이니, 진여본성을 깨친 성불의 경계이다. "공허함이 지극하여 광명이 있다"함은 일체가 공한 크게 죽은 경계인 쌍차를 말하고, "청정함이 원융(圓融)하여 빛난다" 함은 크게 살아난 경계인 쌍조를 말한다.

"일체 만법(萬法)이 다 없어진 때"란 쌍차를 말하고 "밝고 밝게 항상 있다"는 것은 쌍조를 말하며 전체적으로 크게 죽은 가운데 크게 살아남을 말한다. 그러므로 쌍차가 쌍조이며 쌍조가 쌍차여서 차조동시이니 이것이 중도실상(中道實相)이다. 〈능엄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식음(識陰)(제8아뢰야식)이 만일 다하면 너의 모든 근(根)이 현전(現前)에 서로 작용할 것이며, 그 가운데로부터 보살의 금강건혜(金剛乾慧)에 들어가서 원명(圓明)한 정심(精心)이 그 속에서 변화돼 마치 깨끗한 유리병 속에 보배 달을 넣은 듯하며, 이렇게 십신(十信),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回向), 사가행심(四加行心)을 초월해 보살소행(菩薩所行)인 금강십지(金剛十地)와 등각(等覺)이 원명하고 입어여래(入於如來)의 묘장엄해(妙莊嚴海)하고 원만보리(圓滿普提)하야 귀무소득(歸無所得)하리라.

> **"일체 만법이 다 없어진 때란 '쌍차'를 말하고 밝고 밝게 항상 있다는 것은 '쌍조'를 말하며 전체적으로 크게 죽은 가운데 크게 살아남을 말한다"**

만약에 식음이 다 떨어지면 둥글고 밝은 청정한 묘심이 그 가운데서 피어나니 십지(十地)와 등각을 뛰어넘어 묘각(妙覺)인 여래의 묘장엄 바다에 들어가서 보리를 원만히 성취하여 무소득(無所得)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행역선좌역선(行亦禪座亦禪) 어묵동정체안연(語默動靜體安然)'이란 말이 있다. 다녀도 '이 뭣고'이고 앉아도 '이 뭣고'이니,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언제든지 선정과 지혜가 둥글고 맑아 본체가 편안 하다는 것이다. 선이란 일체망상을 떠나서 오매일여(悟寐一如)한데서 '이 뭣고'로 확철히 깨쳐 대원경지가 현발해야 한다.

그전에는 전체가 망상인 줄 알아야 하고, 제 8아뢰야 무기식(無記識)까지도 벗어나 대원경지가 현발(現發)한 그 때가 선인데, 생활속에서 제가불자들의 유일한 수행법이 간화선 '이 뭣고' 이다. 또한 '손법재멸공덕(損法財滅功德)은 막불유기심의식(莫不由斯心意識)'이라고 했다.

법의 재물을 손해내고 공덕을 없애는 병은 심, 의, 식, 에 있다는 말이다. 마음은 제팔 아뢰야식, 의(意)는 제칠 말라식, 식(識)은 제육식을 말하는데 통팔식(通八識)전체를 말한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